

연구논문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유은경^{a)} · 설현수^{b)}

Eunkyung Yu · Hyunsoo Seol

본 연구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서울소재 A대학의 재학생 272명에게 사회적지지 척도검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확인적 요인분석과 Rasch 평정척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가설모형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한 고차모형을 설정하고, 고차모형의 모형적합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차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통요인을 가정한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하나인 Rasch 측정모형을 가지고 표준화 잔차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과 개별문항의 적합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지지 척도가 공통요인을 가정한 Rasch 측정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에 대한 적합도 분석에서도 모든 문항이 측정모형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사회적지지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Rasch 평정척도모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ial structure of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a)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설현수.

Email: snow@cau.ac.kr

the Social Support Scale developed by Park(1985). The Social Support Scale was administered to 272 college students. A single factor second-order model was analyz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single factor second-order model was selected the best-fit model as 4 factors were highly correlated. Rasch rating scale model was adopted for the analysis of dimensionality, individual item fit, person-item map and responses scales categories. The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is of standardized residuals confirmed unidimensionality of the Social Support Scale and fit to the Rasch model was good for all item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support factorial structure, scale, Rasch mode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 . 서론

일반적으로 한 개인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가족, 친구, 선배, 교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환경적 지원은 그 사람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이러한 환경자원을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라고 표현한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Caplan & Killilea 1976; Cassel 1976; Cobb 1976; Dean & Lin 1977), 오늘날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되는 변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고성은 · 황혜영 2009; 서인균 · 고민석 2013; 이옥형 2012; Cobb 1976; Cohen & Wills 1985; Crockett et al. 2007; Cutrona & Russell 1990; House 1981; Lee et al. 2004; Mossakowski & Zhang 2014; Schwarzer & Knoll 2007; Viswesvaran et. al 1999). 또한 사회적지지는 적응(Barrera 1981; Demaray

2005; Dubow & Tisak 1989; Fisher 1985; Friedlander et al. 2007; Ramsay et al. 2007), 자긍심과 자아정체감의 유지(김순혜 2010; Thoits 1982)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불안(송종용 · 원호택 1998; White et al. 1998)이나 우울(George et al. 1989; Lin & Dean 1986; Sheeber et al. 1997), 물질남용(Cohen 1988), 문제행동(Zimmerman et al. 2000)의 완화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심리학, 교육학, 예방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사회적지지가 다면적이며 다기능적인 측면을 포함한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개념적 정의가 나타났으며(Caplan 1974; Cobb 1976; House 1981; Kahn & Antonucci 1980; Shumaker & Brownell 1984),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의 수 또한 늘어났다(박지원 1985; 오가실 2008; Barrera et al. 1981; Cohen & Hoberman 1983; Dubow & Ullman 1989; Sarason et al. 1983; Vaux et al. 1987; Zimet et al. 1988).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에 관한 여러 이론가들(Caplan & Killilea 1976; Cobb 1976; Dean & Lin 1977; Dimond 1979; House 1981; Kahn & Antonucci 1980; Pinneau 1976; Schaefer et al. 1981; Tolsdorf 1976; Turner 1981; Weiss 1974)이 제시한 개념적 정의를 분석해서, 사회적지지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인 도움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해서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하위요인(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을 설정한 다음에, 이론적 개념에 제시된 지지행동의 내용과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경험한 사회적지지 사건을 조사하여 사람들이 주고받는 지지행위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다시 내용에 따라 4가지 하위요인별로 분류한 다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여 총 25문항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제작하였다.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는 House(1981)가 제시한 사회적지지의 분류 도식을 그대로 반영한 검사로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나미 · 김신섭 2013; 김종운 · 김지현 2013; 안혜정 · 이승연 2014; 엄인숙 2012; 임은경 · 김정규 2014; 장현지 · 홍아정 2014; 황민영 외 2014).

사회적지지 척도 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배경변인과 하위 척도별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김나미·김신섭 2013; 김미애 외 2005; 안혜정·이승연 2014; 임은경·김정규 2014; 장현지·홍아정 2014; 정명숙·강석임 2008; 황민영 외 2014) 또는 각 요인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각 요인이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권구영·박근우 2007; 김정은 2013; 양정남 외 2010; 엄인숙 2012; 이은희·조운자 2008; 정명숙·강석임 2010).

사회적지지 척도는 개발 당시에 높은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0.92~0.97)와 함께 Pines et al.(1981)의 심리적 소진검사 및 Zung(1979)의 우울검사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보고하고 있지만, 척도의 하위요인구조에 대한 타당화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최근에 일부 연구들이 사회적지지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주영(2012)과 박완(2013)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요인구조가 개념적인 구분과 동일하게 4요인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강경환(2009)과 서미경(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척도를 3요인 구조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간의 독립을 가정하는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유형이 상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이경주·신효식 1997; Cohen & Wills 1985)를 고려할 때 요인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해서 편향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문항들이 사회적지지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 연구 역시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가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요인 척도점수 또는 총점을 이용한 배경변인 간의 관계성 연구 역시 잘못된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적지지 척도를 가지고 요인 간의 상관을 고려한 요인구조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모형

을 적용해서 척도의 요인 구조 및 개별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사회적지지 척도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지지의 개념 및 특성

새로운 연구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지지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사회적지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Gottlieb 1983). 대표적인 예로 Cobb(1976)는 개인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귀한 존재이며 상호 소통과 호혜의 조직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를 사회적지지라 정의하며 사회적지지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후 Hirsch(1979)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라 정의하며 사회적지지의 관계망을 강조한 반면,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이나 실제적 도움, 긍정적 평가와 정보제공 등을 상호 교류로 정의하며 대인 간의 교류 내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Vaux(1985)와 Barrera(1986)는 이전의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포괄하여 사회적지지를 지지망의 크기와 지지 행위 및 지지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되는 복합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원(1985)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인 도움을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으며, 오가실 외(2008)는 한국적 의미의 사회적지지를 정, 도움, 믿음, 사랑으로 개념화하였다.

사회적지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변으로부터의 정서적지지만을 사회적지지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다면적이면서 다기능적인 성격을 포함한 복잡한 개념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만장일치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지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개념을 종합하여 그 속성을 사회적지지의 구조와 사회적지지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김미령 2005; 배지연·김은이 2003; Cohen & Syme 1985; Kessler & McLeod 1985; Lin et al. 1999; Thoits 1995).

먼저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과의 연결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소속과 관계의 구조, 그리고 관계구조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김미령 2005; Cohen & Syme 1985). 사회적 소속은 개인이 속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이나 조직의 가입 등을 통해 형성된다. 관계구조는 배우자, 친구, 형제, 전문가 등과 같이 개인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의 형태를 말하고, 관계구조의 특성은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원의 다양성이나 관계의 깊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내용을 뜻한다.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지지망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 또는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된다(Lieberman 1982). 사회적지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사회적지지의 기능은 사회적 구조의 형성에 따른 이차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제공되는 행위의 속성에 따라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지만(House 1981) 그 내용이 다면적이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이경주·신효식 1997). 그 결과 Cohen & Syme (1985)은 수단, 정보, 정서로, Thoits(1982)는 정서적지지, 인지적지지, 현실적지지로, Kahn & Antonucci(1980)는 애정, 확신, 보조로 구분하는 등 다양하고 상이한 유형들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House(1981)가 구분한 개념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오세숙 2008; 이은현·김진선 2000).

House(1981)에 따르면 정서적지지는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자신이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주변사람들의 행위로서 사랑, 신뢰, 돌봄, 감정이입의 표현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 사회·정서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대화형태의 도움이다. 도구적지지(물질적지지)는 개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로서 돈, 신체적 지원, 운송수단 등과 같은 물질적 재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적지지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고나 제안, 지시와 같은 행위를 말하며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평가적지지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정과 칭찬을 하는 행위를 뜻하며 개인의 역할수행과 행위에 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비교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사회적지지의 측정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은 서로 다른 차원이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데 동의한다(Barrera 1986; Cohen & Wills 1985; Thoits 1995; Turner et al. 1983; Zimet et al. 1988).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지지 연구의 초창기(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에 집중되었고 주로 결혼 여부나 동호회 가입, 조력자의 존재나 친구와의 연락 등을 묻는 방법(Berkerman & Syme 1979; Eaton 1978; Lin et al. 1979)과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유무, 크기, 근접성, 친밀성, 접촉빈도, 지속시간, 교류내용 등을 확인하는 방법(d'Abbs 1982; Mitchell & Trickett 1980)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측정 내용이 양적으로 클수록 잠정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Barrera 1986). 따라서 사회적지지의 영향(효과)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행위를 제공하며 그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Barrera 1981; Cohen & Hoberman 1985; Norbeck et al. 1981; Sarason et al. 1983; Turner et al. 1983). 이것은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조적 측면의 측정을 통해서만 알 수 없는 보다 역동적인 면을 알 수 있다(이영자·김태현 1999).

근래의 실증연구에서는 대체로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기능적 측면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측정 내용 또한 기능적인 측면을 주로 측정하고 있다(배지연·김은이 2003; 이선옥 2000; Vaux 1988).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다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Barrera & Ainlay 1983; Cohen &

Hoberman 1983; Cohen & McKay 1983; House et al. 1985), 특히 Cohen & McKay(1983)는 사회적지지의 기능은 스트레스상황에 요구되는 대처 양식과 일치할 경우에만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나타낸다는 ‘스트레스-지지특성 가설’을 제시하며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사회적지지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지지를 기능적 요소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혜량을 조사하거나,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요소별 차별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으며(장현지·홍아정 2014; 최혜윤·정남운 2003; 홍국진·한상철 2014; Adams et al., 1996; Duncan et al. 2005; Pappas 2014; Ramsay et al. 2007; Wong et al. 2005), 이로 인해서 측정 도구 또한 사회적지지의 다양한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검사는 Dubow et al.(1991)의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SSAS), Zimet et al.(1988)의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Cohen & Hoberman(1983)의 Interpersonal Social Support Evaluation List(ISEL),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 등이다. SSAS 척도는 청소년용으로 가족, 선생님, 친구로부터 개인이 얼마나 사랑과 보살핌, 존중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41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MSPSS 척도는 성인용으로 개인이 가족, 친구, 중요한 주변인들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한 정도를 묻는 12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SSAS 척도와 MSPSS 척도는 사회적 지원의 원천에 초점을 맞춘 검사로 사회적지지의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ISEL 척도와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사회적지지의 내용(기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볼 수 있다. 두 검사 모두 사회적 지지행위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ISEL 척도는 자존감지지, 정보적지지, 소속감지지, 물질적지지로, 사회적지지 척도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48문항인 ISEL 척도에 비해 25문항인 사회적지지 척도가 더욱 간결하고 시행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사회적지지 척도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14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소재 A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272명을 대상으로 25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지지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응답한 피험자들은 여자 155명, 남자 117명이었고, 학년별로 2학년 83명, 3학년 115명, 4학년 74명, 전공계열별로 인문·사회계열 216명, 이·공학계열 49명, 예·체능계열 2명이었다.

<표 1> 응답자 기술통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여자	155(57)	95.44	11.95
	남자	117(43)	91.12	14.34
학년	2 학년	83(30.5)	93.87	11.30
	3 학년	115(42.3)	93.51	13.84
	4 학년	74(27.2)	93.35	14.22
전공계열	인문·사회	216(79.4)	93.65	13.69
	이·공학	49(18)	93.61	11.55
	예·체능	2(0.7)	90.50	2.12

2. 측정도구

사회적지지 척도(박지원 1985)는 개인이 지각하는 주변사람들의 사회적지지 행위를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형식으로 평정하고 있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정서적지지(7문항), 평가적지지(6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문항)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검사 문항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정서적지지에는 개인이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을 경험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정보적지지에는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개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물질적지지에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평가적지지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의 해석은 총점이 높을수록 많은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검사개발 당시에 0.92~0.97의 높은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과 함께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25문항에 대한 문항적합도 분석을 위해 크게 확인적 요인분석과 Rasch 측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사회적지지 척도 총 25문항에 대해서 4개 하위요인간의 상관성을 기초로 하여 도출한 고차모형의 일반화를 검증할 목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동시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지수 등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의 해석에서 RMSEA는 .06 이하면 매우 좋은 것으로, .06~.08 사이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했으며(Hu & Bentler 1999), CFI 와 TLI 지수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2) Rasch 측정모형 분석

고차모형의 요인구조와 함께 개별문항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항 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기초한 평정척도모형(rating scale model)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평정척도모형(Andrich 1978)은 리커트 형 5점 척도와 같이 평정척도 형태로 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Rasch 모형(Rasch 1960)을 기초로 개발된 측정모형이다. 평정척도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ln\left(\frac{P_{nik}}{1-P_{nik}}\right) = B_n - D_i - F_k \quad (1)$$

여기서 P_{nik} 는 피험자 n 이 문항 i 의 척도 k 에 응답할 확률을 의미하고 다음 공식(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P_{nik} = \frac{e(B_n - D_i - F_k)}{1 + e(B_n - D_i - F_k)} \qua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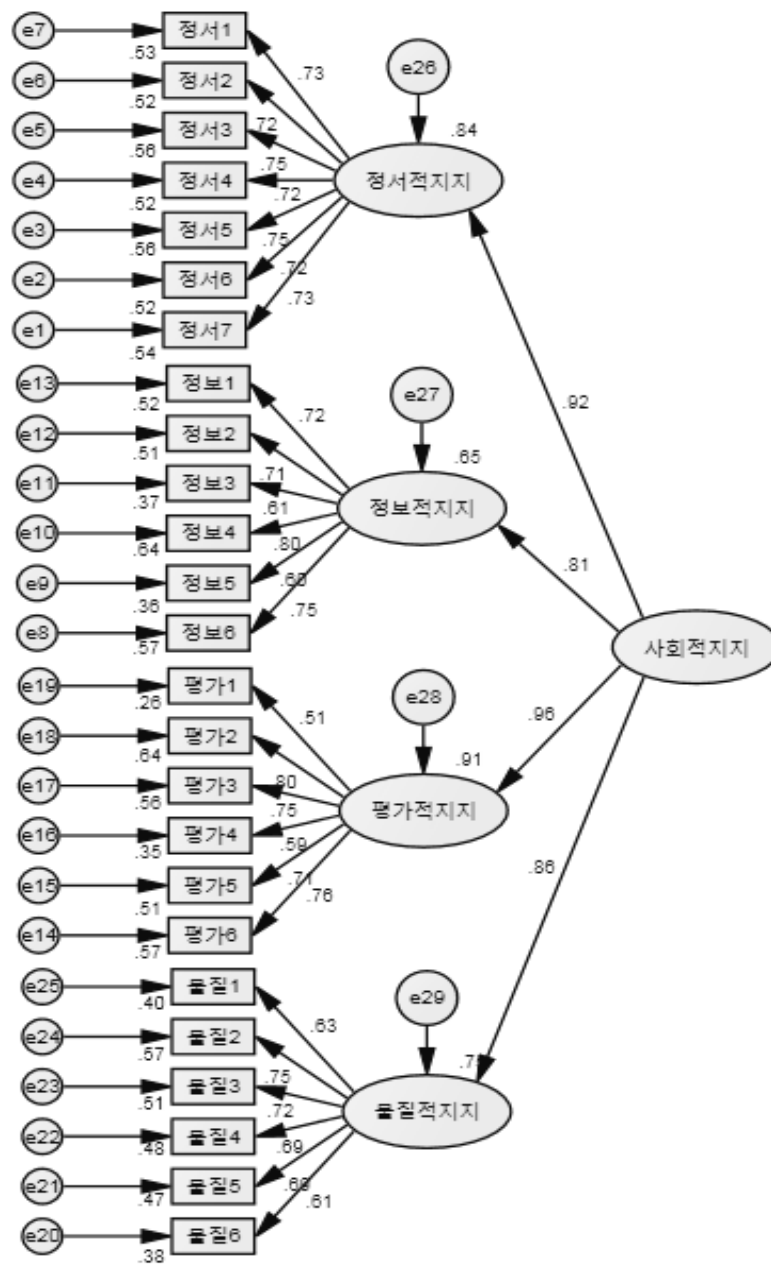
여기서 B_n 은 피험자의 능력, D_i 는 문항 난이도, F_k 는 척도 k 와 $k-1$ 사이의 경계점 위치를 의미한다.

위의 공식(1)은 피험자의 능력추정치와 문항난이도 추정치를 로짓(logits)이라는 공통척도상에 위치시켜 상호 독립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항반응이론 모형과는 달리 자료가 모형에 적합하다면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 난이도 추정치가 상호 독립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Anderson 1973; Wright & Stone 1979). 평정척도모형의 모수추정은 WINSTEPS 3.81.0 프로그램(Linacre 2014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차원을 가정하고 있는 Rasch 측정모형은 자료가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으로 설명하고 남은 잔차 분산(residual variance)이 단순 무선오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을 암시하고 있는 체계적인 오차분산인지를 분석함에 의해서 검사의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고 있다(Andrich et al. 2005; Smith & Miao 1994). 이러한 분석은 표준잔차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함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다(Linacre 1998).

IV.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그림 1〉 사회적지지 척도의 고차모형

사회적지지 척도의 고차모형의 요인구조가 지지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구조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모형 검증의 결과, RMSEA=.064, CFI=.914, TLI=.905로 고차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1>에 제시된 요인 부하량 값 모두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Rasch 측정모형 분석

1) 신뢰도 분석

사회적지지 척도의 4개 하위요인(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과 전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4개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0.83~0.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검사 신뢰도 역시 0.94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지지	7	0.87
평가적 지지	6	0.83
정보적 지지	6	0.85
물질적 지지	6	0.84
전체	25	0.94

2) 표준잔차(standardized residual)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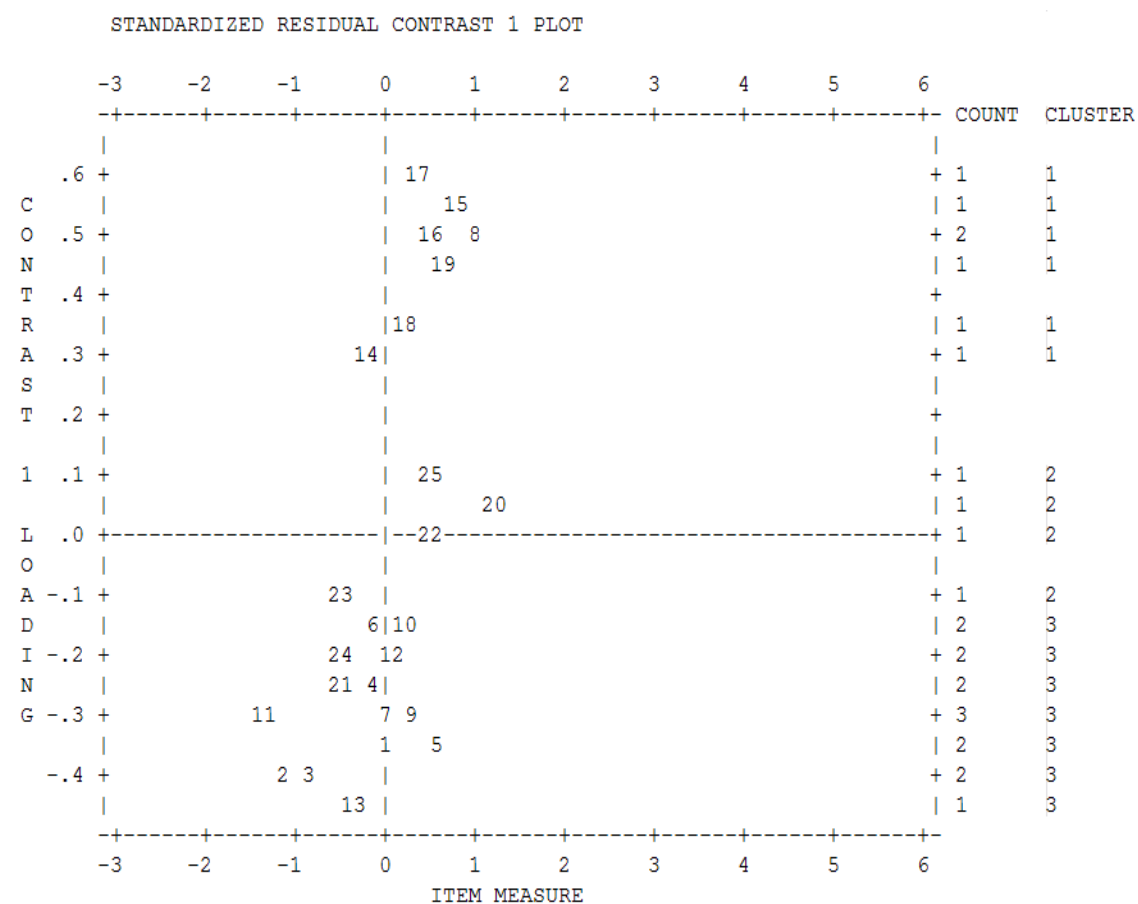
<표 3>은 Rasch 측정모형 분석을 하고 남은 잔차값으로써 주성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첫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이 2.9로 잔차 분산의 6.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Linacre(2014b)는 잔

<표 3> 표준잔차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

Component	Eigenvalue	VAF(%)
1	2.9	6.2
2	2.3	5.0
3	1.8	3.9
4	1.5	3.1
5	1.3	2.9

주1. VAF= 요인에 의해 설명된 잔차 분산의 비율.

주2. NSTEPS 프로그램에서는 편의상 5개 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 및 분산비율을 보고하고 있음.



<그림 2> 요인 부하량에 기초한 첫 번째 잔차 요인 구조 유형

차 분산이 또 다른 차원을 암시할 수 있는 값의 기준으로 첫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잔차 요인의 구조의 유형이 단순 무선오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구조를 암시하는 체계적 오차 분산인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성분 부하량을 정적(+)과 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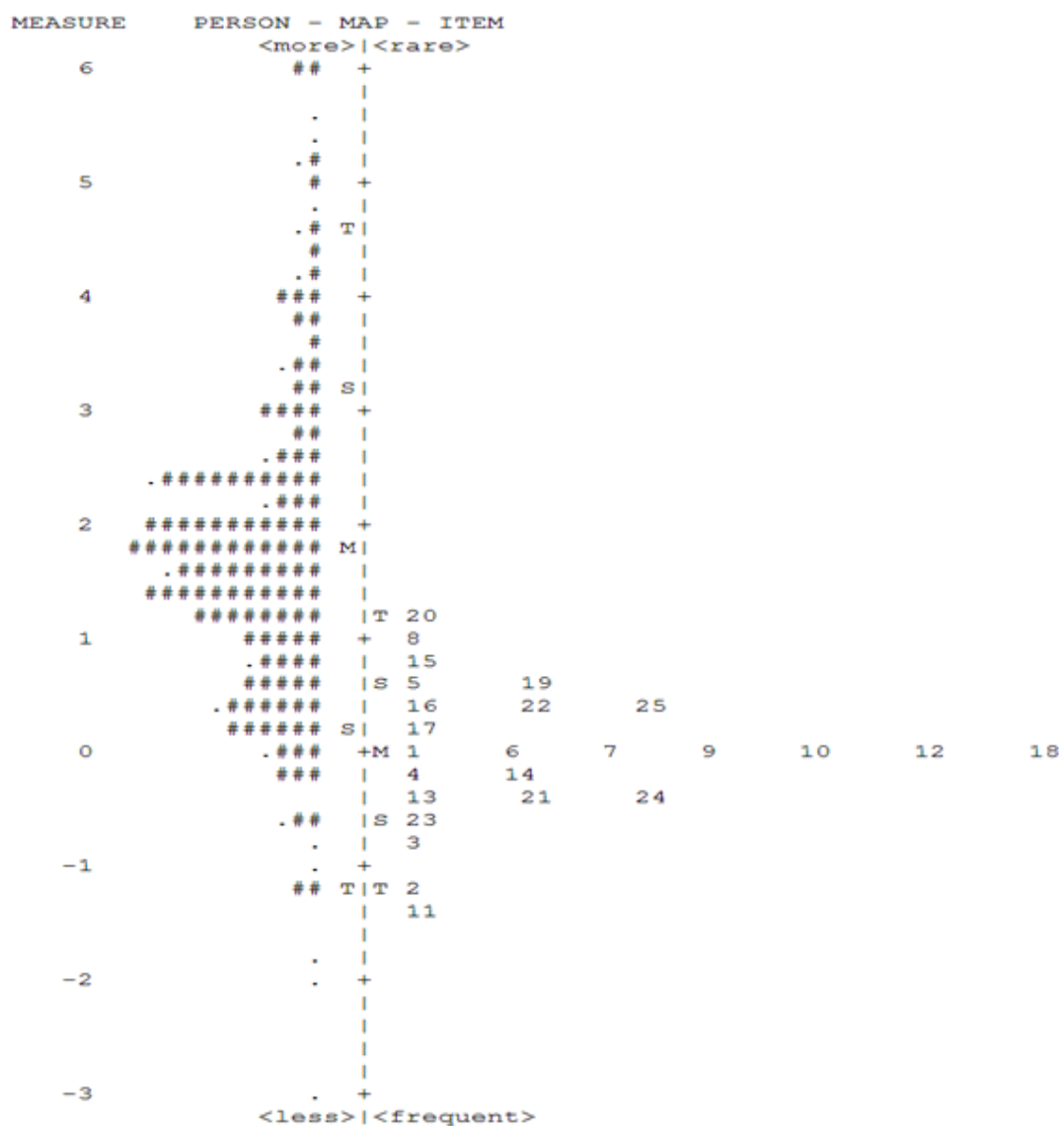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총 25개의 문항들이 문항난이도 추정값(가로축)과 주성분 부하량(세로축)에 기초하여 제시되어 있다. 오른쪽의 'CLUSTER'는 주성분 부하량을 이용하여 전체 문항이 몇 개의 유사집단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잔차 요인 구조에서 검사문항들이 총 3개의 유사문항 집단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 문항군은 주로 정보적지지와 관련된 문항들(14, 15, 16, 17, 18, 19번 문항)로 이루어져 있고, 2번 문항군은 물질적지지(20, 22, 23, 25번 문항)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며, 3번 문항군은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를 포함한 기타 문항들이 혼합되어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에 의해서 분류된 문항군들 간의 피험자 추정치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문항군에서 추정된 피험자 추정값 간의 상관정도에 따라서 두 개의 문항군이 경험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재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독립된 영역(다른 차원)으로 간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판단을 해볼 수 있다. 만약 문항군 간에 피험자 능력 값들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다면 두 개의 문항군은 유사한 속성을 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inacre 2014b). 분석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군 간의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관계수(disattenuated correlation) 값이 0.70, 첫 번째와 세 번째 상관계수는 0.77, 두 번째와 세 번째 상관계수는 0.79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요인 부하량에 기초한 첫 번째 잔차요인 구조의 경우, 분류된 문항군들이 경험적으로 피험자들의 추정값을 왜곡시킬 만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3) 피험자 X 문항 분포도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이 피험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어

느 정도로 변별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피험자 추정치와 문항 추정치 분포를 동일 척도(logit 척도)상에 위치시켜 비교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Winsteps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적으로 문항 추정치를 중심화(centering)한 다음에 피험자 추정치를 logits 척도상에 위치시켜 비교한다.



〈그림 3〉 피험자 × 문항 도표

<그림 3>은 272명의 피험자와 25개의 문항을 사회적지지 성향이 높은 피험자와 피험자가 반응하기 어려운 문항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M’은 피험자(또는 문항)의 평균 추정치를 의미하고 ‘S’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T’는 2 표준편차 떨어진 위치를 나타낸다. 피험자 추정치 분포에서(그림의 왼쪽) ‘#’은 피험자 2명, ‘●’는 피험자 1명을 나타낸다.

<그림 3>의 도표를 보면 피험자의 모수 추정값은 대략 -1.0~5.0 로짓(logits) 사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문항의 모수 추정값은 거의 ± 1 로짓 사이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1 로짓 이상의 추정값을 가진 피험자들의 사회적지지 수준을 정확히 변별해줄 수 있는 문항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1 로짓 이상의 피험자 모수 추정값의 표준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지지 척도 검사를 수정할 때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피험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검사 문항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항적합도 분석

문항적합도 분석은 개별문항에 응답한 피험자의 응답반응과 Rasch 평정 척도모형에서 추정된 확률 값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의해서 개별문항의 타당성 정도를 판단해 보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Andrich et al. 2005; Smith 1991; Smith et al. 1998).

Rasch 측정모형에서 제공하는 적합도 지수는 크게 외적합도 지수(outfit mean square)와 내적합도 지수(infit mean squar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지수는 기댓값 1.0을 중심으로 0.5~1.5 사이에 통계 값이 위치할 경우 문항이 일차원성을 가정하는 Rasch 측정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Linacre 2014b). 문항의 양질의 정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지수로 점이연 측정상관계수(point-measure correlation)가 있다. 점이연 측정상관계수는 문항점수와 피험자 측정치간의 상관계수이며, 계수 값이 0에 가깝거나 음수 값을 나타내는 문항의 경우 역코딩 문제 또는 문항 내용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적합도 분석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 값(0.5~1.5)을 벗어난 문항은 없었고, 점이연 측정계수

역시 0에 가깝거나 음수 값을 나타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번 문항(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준다)의 경우 내적합도 지수가 1.42, 외적합도 지수가 1.43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문항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문항적합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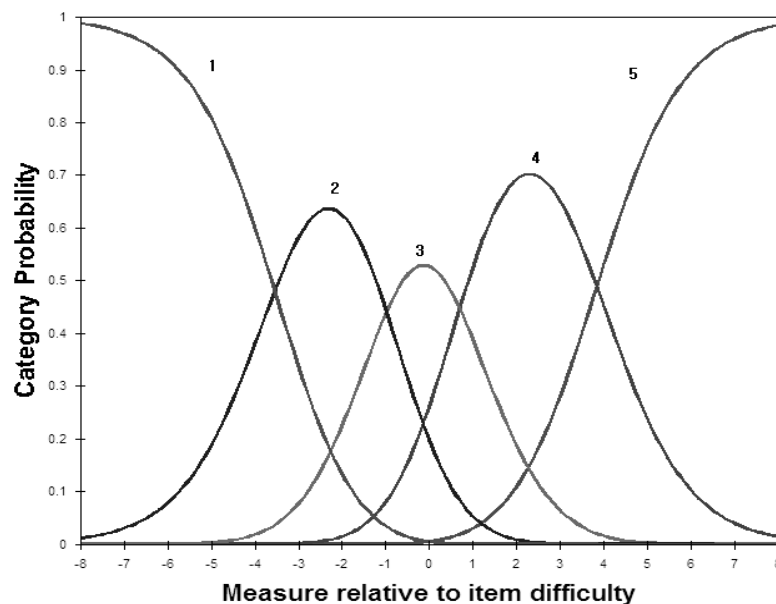
문항번호	추정치	내적합도	외적합도	점이연상관
1	-0.03	0.77	0.78	0.67
2	-1.19	0.94	0.94	0.62
3	-0.85	0.79	0.79	0.66
4	-0.26	1.03	0.98	0.66
5	0.52	0.89	0.89	0.70
6	-0.08	0.92	0.89	0.70
7	0.02	0.89	0.88	0.70
8	0.99	1.20	1.21	0.59
9	-0.03	0.88	0.87	0.73
10	-0.02	0.93	0.90	0.69
11	-1.32	1.07	1.04	0.56
12	0.04	1.02	1.05	0.66
13	-0.49	0.67	0.67	0.68
14	-0.12	1.08	1.06	0.66
15	0.70	1.37	1.35	0.61
16	0.38	1.27	1.30	0.53
17	0.29	0.85	0.86	0.68
18	0.08	1.23	1.24	0.55
19	0.63	0.82	0.81	0.70
20	1.19	1.42	1.43	0.58
21	-0.37	0.95	0.95	0.66
22	0.37	0.87	0.92	0.64
23	-0.57	0.92	0.90	0.60
24	-0.37	0.83	0.88	0.62
25	0.48	1.14	1.19	0.56

5) 평정척도 분석

평정척도로 응답하는 검사를 제작할 때 응답 척도 역시 잠재변인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응답수준을 가져야 한다. 즉, 척도점수가 증가할수록 각 척도 점수에 응답한 피험자의 평균 능력 추정치와 척도 경계점도 함께 증가해야 한다. 사회적지지 척도에서 사용한 5점 척도의 응답구조와 적합도 분석결과를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척도점수가 증가할수록

<표 5> 5점 척도의 응답구조와 적합도 분석

척도	관찰빈도(%)	평균능력 추정치	내적합도	외적합도	척도 경계점
1	37(1)	-0.95	1.67	1.86	-
2	490(7)	-0.38	0.92	0.91	-3.55
3	1758(26)	0.82	0.99	0.99	-0.98
4	3412(50)	1.93	0.94	0.93	0.69
5	1103(16)	3.53	1.05	1.02	3.84



<그림 4> 5점 척도의 확률구조 도표

피험자 평균 추정치와 척도 경계점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정척도의 기능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 참조). 그러나 각 척도에 응답한 관찰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피험자가 3, 4, 5번 척도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1, 2번 척도에는 거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피험자가 지각하는 다양한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문항의 개발이 요청된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척도의 요인구조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가지고 검사에서 제시된 요인구조가 지지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요인 간의 상관을 고려한 고차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해서 척도의 요인구조 및 개별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 기초한 하위요인 간의 상관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고려한 고차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 모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고차모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역시 4개 하위요인별로 0.83~0.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검사 신뢰도 역시 0.94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 척도는 4개 하위요인에 대한 총점을 가지고 피험자의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총점을 사용하는 자체가 척도의 일차원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지지 척도가 ‘사회적

지지'라는 일차원성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검사 총점에 대한 해석 및 규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원성을 가정하는 Rasch 평정척도모형을 사용해서 사회적지지 척도의 일차원성과 문항적합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일차원성을 가정하는 Rasch 측정모형에서 설명되고 남은 잔차 분산에서 유의미한 체계적 오차분산을 발견하지 못 했다. 즉, 검사 내부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지지 척도는 '사회적 지지'라는 공통요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지지 척도는 개념적으로 상이한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라는 동일한 잠재변수를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척도문항이 피험자의 다양한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험자X문항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척도 문항이 피험자의 다양한 수준을 커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검사 개정 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성향을 가진 피험자군들을 적절히 변별할 수 있는 문항 제작이 요청된다.

다섯째, 척도문항이 측정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5문항에 대한 개별 문항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자료가 일차원성을 가정하는 측정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사회적지지 척도의 응답척도인 5점 평정척도를 분석한 결과, 피험자들이 주로 3점~5점(보통이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고 1점~2점(전혀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문항 내용이 1점 또는 2점 척도에 응답할 문항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응답반응이 나올 수 있는 문항내용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 모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검사 모형과 개별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대학생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박지원(1985)이 검사를 개발할 당시에 다양한 층의 표본(대학생, 회사원, 환자, 간호사 등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개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척도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 놓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교차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일차원성을 가정하는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가지고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혼합 Rasch 모형(Mixed Rasch Model)과 같이 응답반응의 패턴을 분석해서 요인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적용해서 척도를 분석한다면 척도 수정 및 타당화의 관점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환. 2009. “장애자녀 부모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7(4): 91-107.
- 고성은·홍혜영. 2009.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1): 97-124.
- 권구영·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연구》 14: 187-219.
- 김나미·김신섭. 201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25-1144.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 김미애·이보라·이기학. 2005. “성격 요인과 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 유형별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05(0): 472-473
- 김순혜. 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지지의 영

- 향.” 《인간발달연구》 17(4): 1-18.
- 김주영. 2013.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 완. 2013. 《체육관련 전공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지연 · 김은이. 2003. “사회적지지에 관한 사회복지 논문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1: 245-265.
- 서미경. 1999. “정신장애인 가족의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17-238
- 서인균 · 고민석. 2011.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1(1): 127-157.
- 안혜정 · 이승연. 2014. 유치원 교사의 정서노동과 직무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1(2): 77-103.
- 양정남 · 최은정 · 김화선 · 심정영. 2010.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노인차별경험의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207-229.
- 오가실 · 오경옥 · 이숙자 · 김정아 · 정추자 · 김혜령 · 강정희. 2008. “한국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8(6): 881-890.
- 이경주 · 신호식. 1997. “십대자녀가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31-140.
- 이영자 · 김태현. 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79-93.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임은경 · 김정규. 2014.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4(1): 49-67.
- 장현지 · 홍아정. 201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3(2): 17-40.
- 정명숙 · 강석임. 2008.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병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 562-563.

- 최혜윤 · 정남운. 2003.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79-300.
- 한미현 ·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
동학회지》 17(1): 173-188.
- 황민영 · 방희정 · 김영숙. 2014. “고등학생의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우울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3(1): 239-261.
- 홍국진 · 한상철.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125-143.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
리학회지-임상》 19: 161-177.
- Adams, G.A., L.A. King, and D.W. King. 1996. “Relationships of Job and
Family Involvement, Family Social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with Job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411.
- Andersen, E.B. 1973. “Conditional Inference for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26(1):
31-44.
- Andrich, D. 1978. “Rating Formulation for Ordered Response Categories.”
Psychometrika 43(4): 561-573.
- Andrich, D., B. Sheridan, & G. Luo. 2005. Interpreting RUMM2020 Monograph.
Retrieved July 20, 2007, from <http://www.rummlab.com>.
- Barrera, Jr.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arrera, M. and Ainlay, S.L. 1983. “The Structure of Social Support: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2): 133-143.
- Barrera, M., I.N. Sandler, and T.B. Ramsay. 198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4): 435-447.
- Barrera, M. 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 Assessment Issue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4: 69-96.
- Bentler, P.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Caplan, G. and M. Killilea. 1976. *Support Systems and Mental Health*. New York, US: Grune & Stratton.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Pasadena: Behavioral Publications.
-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2): 107-123.
- Cohen, S. 1988. “Psychosoci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3): 269.
- Cohen, S.E., and S. Syme.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Diego: Academic Press.
- Crockett, L.J., M.I. Iturbide, R.A. Torres Stone, M. McGinley, M. Raffaelli, and G. Carlo. 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4): 347.
- Cutrona, C.E. and D.W. Russell. 1990. *Type of Social Support and Specific Stress: Toward a Theory of Optimal Matching*. Oxford: John Wiley & Sons.
- d'Abbs, P. 1982. *Social Support Networks: A Critical Review of Models and Findings*. Melbourne: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Dean, A. and N. Lin. 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6): 403-417.
- Demaray, M.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udent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42(7): 691-706.

- Dubow, E.F. and D.G. Ullman.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Duncan, S.C., T.E. Duncan, and L.A. Strycker. 2005. "Sources and Types of Social Support in Youth Physical Activity." *Health Psychology* 24(1): 3.
- Eaton, W.W. 1978. "Life Events, Social Supports, and Psychiatric Symptoms: A Reanalysis of the New Haven Dat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30-234
- Fisher, C.D. 1985.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Work: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11(3): 39-53.
- Friedlander, L.J., G.J. Reid, N. Shupak, and R. Cribbie. 2007.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8(3): 259-274.
- George, L.K., D.G. Blazer, D.C. Hughes, and N. Fowler. 1989. "Social Support and the Outcome of Major Depress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4): 478-485.
- Gottlieb, B.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House, J.S., R.L. Kahn, J.D. McLeod, and D. Williams.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San Diego: Academic Press
- House, J.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 Co.
- Hu, L.Z. and P. Bentler. 1999. "Cut o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e, P.S., Y.M. Lee, J.Y. Lim, R.I. Hwang, and E.Y. Park. 2004. "The Relationship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Taehan Kanho Hakhoe Chi* 34(3): 477-484.
- Lieberman, M.A. 198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Responses to

- Stres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764-784. New York: Free Press.
- Lin, N. and A. Dean.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Lin, N., W.M. Ensel, R.S. Simeone, and W. Kuo. 1979.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2): 108-119.
- Linacre, J.M. 1998. “Detecting Multidimensionality: Which Residual Data-type Works Best?” *Journal of Outcome Measurement* 2: 266-283.
- Linacre, J.M. 2014a. Winsteps® Rasch Measurement Computer Program. Beaverton, Oregon: Winsteps.com.
- Linacre, J.M. 2014b. Winsteps® Rasch Measurement Computer Program User's Guide. Beaverton, Oregon: Winsteps.com
- Mossakowski, K.N. and W. Zhang. 2014. “Does Social Support Buffer the Stress of Discrimination and Reduce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sian America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7(3): 273-295.
- Norbeck, J.S., A.M. Lindsey, and V.L. Carrieri.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5): 264-269.
- Pappas, C.J. 2014. “Assessing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Teachers and Other School Professionals.” Masters Theses. Paper
- Pines, A.M., E. Aronson, and D. Kafry.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Free Press
- Ramsay, S., E. Jones, and M. Barker 2007.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and Support types: Young and Mature-aged Local and International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Higher Education* 54(2): 247-265.
- Rasch, G. 1960. *Probabilistic Models for Some Intelligence and Attainment Tests*. Copenhagen: Danmarks Paedagogiske Institute.
- Sarason, I.G., H.M. Levine, R.B. Basham, and B.R. Sarason.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27.
- Schwarzer, R. and N. Knoll. 2007. "Functional Roles of Social Support within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4): 243-252.
- Sheeber, L., H. Hops, A. Alpert, B. Davis, and J. Andrews. 1997. "Family Support and Conflict: Prospective Relations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4): 333-344.
- Smith, R.M. 1988. "The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Rasch Standardized Residual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8: 657-667.
- Smith, R.M and C.Y. Miao. 1994. "Assessing Unidimensionality for Rasch Measurement." *Objective Measurement: Theory into Practice*. Volume 2: Greenwich: Ablex.
- Smith, R.M., R.E. Schumacker, and M.J. Bush. 1998. "Using Item Mean Squares to Evaluate Fit to the Rasch Model." *Journal of Outcome Measurement* 2: 66-78.
- Thoits, P.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 Tucker, L.R. and C. Lewis.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Turner, R.J., B.G. Frankel, and D.M. Levin. 1983. "Social Suppor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3: 67-111.
- Vaux, A., S. Riedel, and D. Stewart. 1987. "Modes of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Behaviors(SS-B)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2): 209-232.
- Vaux, A. 1985. "Variations in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Gender, Ethnicity, and Age." *Journal of Social Issues* 41(1): 89-110.
- Viswesvaran, C., J.I. Sanchez, and J. Fisher. 1999.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Work Str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 Vocational Behavior* 54(2): 314-334.
- Wong, S.T., G.J. Yoo, and A.L. Stewart. 2005. "Examining the Types of Social Support and the Actual Sources of Support in Older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2): 105-121.
- Zimet, G.D., S.S. Powell, G.K. Farley, S. Werkman, and K.A. Berkoff. 199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3-4): 610-617.
- Zimmerman, M.A., J. Ramirez-Valles, K.M. Zapert, and K.I. Maton.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buffering Effects for Urban African-american Male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1): 17-33.

<접수 2014/9/26, 수정 2014/12/18, 게재확정 2015/1/19>

〈부록 1〉 사회적지지 척도 문항

유형	번호	내용
정서	1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3	내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4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5	내 주변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6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7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평가	8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9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10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11	내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12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3	내 주변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정보	14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15	내 주변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16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17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8	내 주변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19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물질	20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준다.
	21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22	내 주변사람들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23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 준다.
	24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 준다.
	25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준다.